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을 중심으로 -

노 병 일*

(대전대학교)

손 정 환**

(대전대학교)

[요 약]

현대에 들어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배제를 겪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중에서 우울은 음주, 자살, 장애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비정규직, 사회적 배제, 정신건강, 우울, 건설직 일용근로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가 진행되고 기업의 경쟁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서 노동시장과 고용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기 위한 요건으로 '유연성

* 노병일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저자

** 손정환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flex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는 고용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Benach, Benavides, Platt and Muntaner, 2000; Kivimaki, Vahtera, Virtanen, Pentti and Ferrie, 2003; Bardasi and Francesconi, 2004).

그러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질적·비물질적으로 취약해져서 사회적으로 주변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심하게 겪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제는 소득이 낮은 것,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상태에 있는 것, 생활하면서 비(非)금전 영역에서 불이익을 겪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윤성호, 2005: 153).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중에서도 비정규직 상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Virtanen, Liukkonen, Vahtera and Koskenvuo, 2003; Artazcoz, Benach, Borrell and Cortes, 2004: 82; Nätti, Kinnunen, Mäkikangas and Mauno, 2009).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약한 정신건강은 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켜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이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학술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¹⁾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더구나 외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정신건강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널리 퍼져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하나로 우울(depression)을 꼽을 수 있다. 우울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장애를 가장 자주 일으키는 요인에 속한다. 우울은 일단 발생하면 만성적으로 나타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우울은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장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Bilsker, 2006). 특히 우울은 무기력을 동반해서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에 속한다(NMHA, 2004). 그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들 중에서 우울에 관해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표적인 예로 인식되어 왔다(정이환, 2000; 인수범, 2001).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근무하는

1) 그간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는 사업장(workplace)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관해서는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사업장은 사회복지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고,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이다(성규탁, 1992). 실제로 사회복지학과의 정규 과목에는 '산업복지론'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학은 원조직(helping profession)과 관련된 학문이니만큼, 앞으로 근로자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비율은 60%가 넘는다. 그리고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다(정이환, 2000; 김정훈·김승욱·정태상·김용수, 2009; 최상준·김신범, 2009).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념형에 가장 가까운 근로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에서도 시장이 가장 지배하는 고용관계 속에 있는 집단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건설직 일용 노동시장은 참여 및 이탈과 관련된 기회비용이 거의 없고, 완전한 외부노동시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정이환, 2000).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경우, 우리나라는 건설근로자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2009년에는 부족한 건설 인력이 약 7만 명이었고, 2013년에 이르러서는 부족한 건설 인력이 약 15만 명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김군태·김창한, 2010). 따라서 대표적인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건설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직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겪는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살펴본다. 둘째,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사회인구적·고용관련 특성과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이에 따른 우울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1) 비정규직 고용

(1)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함에 따라 사업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서 생산체제가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붕괴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근로자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잘 적응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해 왔다. 그 결과, 더 다양해진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Rodriguez, 2002; Virtanen 외, 2003; Bardasi and Francesconi, 2004).

일반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은 핵심적(core) 영역과 주변적(periphery)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핵심적 영역의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

리고 핵심적 영역의 일자리 주위에 주변적 영역의 일자리가 있다. 주변적 영역의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와 완전한 실업 사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적 영역의 일자리는 여러 종류의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한 특성은 일자리 계약을 특정한 형태로 하는 것과 크게 관련된다. 당연히도 주변적 영역의 일자리는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다(Benach 외, 2000; Virtanen 외, 2003; Virtanen 외, 2005).

(2)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와 형태

후기 산업사회에 존재하는 유동적인 노동시장에서 핵심적 영역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에 주변적 영역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Benach 외, 2000; Akira, 2001; Virtanen 외, 2003).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계약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odriguez, 2002; Kivimaki 외, 2003).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은 고용 기간이 제한된 유급 고용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Virtanen 외, 2005; Natti 외, 2009).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Rodriguez, 2002; Bardasi and Francesconi, 2004). 첫째, 계약직 고용이 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서 일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둘째, 일시적 고용이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일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셋째, 파트타임 고용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파트타임 고용을 비표준적 고용이나 비전형적 고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일시적 고용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0). 많은 학자들은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꼽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경제활동 인구층으로서, 비(非)경제활동 인구층이나 실업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용근로자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으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경우, 일용근로자는 '불안정 취업층'이라고 볼 수 있다(최항순, 1998).

2)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의 등장배경과 개념 및 차원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에서는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해 왔고, 그 결과로 복지국가의 바탕이 되는 전제들이 의문시 되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나 어떤 형태의 사회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해 왔다(Silver, 1994). 그 결과, 취약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 여러 가지 등장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회정책의 토대가 되어온 개념은 '사회

적 배제'이었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1980년대의 프랑스 사회주의 정부에서 실시한 사회정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유럽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까지 퍼져 나갔다(Silver, 1994; de Haan, 1999; Percy-Smith, 2000; 심창학, 2001).

이런 맥락에서 여러 학자와 기관에서 사회적 배제에 관해 정의를 내려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의 사회적 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 2005)은 사회적 배제를 “사람이나 지역이 여러 가지 서로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을 간단히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파워(Power, 2000)는 사회적 배제를 모든 집단과 개인들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한(Haan, 1999)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전체적·부분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나 결과의 측면 중 하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노병일, 2006: 43-44).

한편, 사회적 배제의 차원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과 사회적 배제의 거시적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를 나열하고 있고, 사회적 배제의 거시적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거시적 요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노병일, 2006: 97).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더 관련이 있는 접근 방식은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의 경우, 일부 기관과 학자들은 사회적 배제의 영역을 여러 가지 제시해 왔다(노병일, 2006). 예를 들어 아가월과 브룬트(Agarwal and Brunt, 2006)는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 취약과 관련한다고 보면서, 사회적 배제는 빈곤, 불평등, 박탈, 사회적 보호와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능력이 없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실버(Silver, 1994)는 생계로부터의 배제, 안전하고 영구적인 고용으로부터의 배제, 소득으로부터의 배제, 재산이나 신용이나 토지로부터의 배제, 주택으로부터의 배제, 최소 또는 주류 소비수준으로부터의 배제, 교육과 기술과 문화 자본으로부터의 배제,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로부터의 배제, 시민권으로부터 배제와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의 배제,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의 배제, 공공재로부터의 배제, 민족이나 주류 인종으로부터의 배제, 가족과 사교(sociability)로부터의 배제,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존경받고 개인적으로 실현하고 공감을 얻는 것으로부터의 배제를 제시하고 있다.

(2) 비정규직 고용과 사회적 배제

영국의 사회적 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 2004)은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노동시장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핵심적인 노동시장 요인은 실업, 노동시장의 유연성, 소득 분포, 일자리가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노동시장 요인에서 불리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어슨(Pierson, 2002)은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는 과정과 관련된 중요 요소로 소득과 관련

된 요소, 고용과 관련된 요소,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요소, 지역이나 동네와 관련된 요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과 관련된 요소는 빈곤과 저소득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고용과 관련된 요소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소는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과 관련된 요소, 고용과 관련된 요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소에서 특히 불리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보다 여건이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Bardasi and Francesconi, 2004).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는 불안정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커지고 또한 기타 사회적으로 불리한 가능성이 더 커진다(Virtanen 외, 2005; Nätti 외, 2009). 비정규직 고용과 실업 사이에는 악순환적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많은 실업자들은 예전에 비정규직에서 일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거꾸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과 실업 사이의 관계는 모호할 수도 있다(Benach 외, 2000). 그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정규직 고용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은 시간당 임금이 더 적고 또한 기타 급여가 더 적다. 실제로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형태인 계절·일시적 근로자는 임금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Rodriguez, 2002; Nätti 외, 2009; Bardasi and Francesconi, 2004). 또한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는 복지와 관련된 혜택이 적고 현장 교육이 적다(Virtanen 외, 2005).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는 소득이 적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질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 나은 일자리로 고용되거나 승진될 가능성이 더 낮다.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의 성격과 일의 일정과 관련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Rodriguez, 2002; Bilsker, 2006). 예를 들어 정규직 일자리의 근로자에 비해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로자는 작업과정에서 더 많이 지시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작업과정을 통제하는 정도가 더 낮을 수 있다(Benach 외, 2000). 이럴 경우에, 비정규직 고용은 자율성이 적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위험한 물질을 다루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규직 일자리의 근로자에 비해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로자가 일하는 근무 환경은 위험하고 열악한 경우가 많다(Benach 외, 2000; Nätti 외, 2009).

요컨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임금, 소득, 복지, 근무 여건 등의 여러 차원에서 취약하므로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 마디로 말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에 근거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층이라고 볼 수 있다(윤정향, 2003: 78).

3) 정신건강(우울)

(1) 우울의 개념과 여파

우울은 대표적인 정신건강 증상이다. 우울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과 학자들이 정의를 내려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 간행한 사전에서는 우울을 슬픔, 자포자기 절망, 미래에 대한 비판, 활동·생산성의 저하, 수면 장애나 심한 피곤, 부적절감·자기혐오감·절망감의 특징을 가지는 감정적 반응으로 보고 있다(Barker, 2003). 그리고 로스(Ross, 2000)는 우울을 쇠약하고 피곤하고 슬프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의 여러 기관과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우울은 인간 생활에서 비관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특징으로 가지는 마음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노병일, 2008: 138).

우울은 근로자 개인에게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우선, 우울은 개인의 모든 정신적 과정을 변화시킨다. 근로자가 우울을 겪게 되면 절망감과 무기력을 함께 느끼는 경우가 많다(Rice, 1999). 그리고 우울을 겪는 근로자는 알코올에 의존해서 우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울을 겪는 근로자가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 알코올에 의지하면, 나중에 근로자는 알코올에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 알코올에 중독되는 상태에 놓인다. 그리고 우울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Levithal, 1999: 315; NMHA, 2004).

근로자가 겪는 우울은 사업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노병일, 2008: 141-142). 근로자의 우울은 근로자가 생산 영역에서 판단하는 능력,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 근로자의 전반적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사업장은 궁극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우울 때문에 근로자가 완전히 집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유발하여 사업장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2) 비정규직 고용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우울)

사회적 배제는 어떤 식으로 차별을 당하거나 격리되는 개인과 집단에게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rcy-Smith, 2000: Social Exclusion Unit, 2004). 첫째,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생활에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이 개인의 아동이 가지는 생활기회에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제 그 자체와 사회적 배제의 다른 발생 요인들 때문에 건강이 열악해질 수 있다(Social Exclusion Unit, 2004). 이 경우에 열악한 건강에는 정신건강도 당연히 포함된다.

한편,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배제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무 환경은 정규직 일자리의 근무 환경보다 더 열악하고 위험하여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Benach 외, 2000; Nätti 외, 2009). 예를 들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면 정신건강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odriguez, 2002). 특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장 조직과 비정규직 고용은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에 나타나는 불리한 특성의 일부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실업을 경험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업자는 정신건강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ach 외, 2000; Artazcoz 외, 2004). 비정규직 고용은 실업 상태의 측면을 일부 지니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신건강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므로 정신건강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율성이 적은 업무와 지휘체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Bilsker, 2006; Nätti 외, 2009). 예를 들어 비정규직 일자리는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심리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므로 정신건강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ardasi and Francesconi, 2004; Virtanen 외, 2005; Bilsker, 2006).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신건강이 열악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ardasi and Francesconi, 2004).

4) 건설직 일용근로자

(1) 건설업과 건설직 노동시장의 특징

건설업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건설업은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최명선, 2006).

그러나 건설업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주문해 생산하는 산업이고 수요가 불안정한 산업에 속한다. 이에 따라서 건설 자본은 이윤을 최대로 얻기 위해,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노동비용과 위험부담을 분산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백석근, 1996; 최향순, 1998).

그리고 건설직에서의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Leino-Arjas 외, 1999; 방하남, 1999; 김성숙·김희은, 2006). 첫째, 대부분의 경우에 건설 작업은 옥외에서 실시한다. 둘째,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날씨와 계절 등의 자연환경이 건설 작업의 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에 따라 건설 근로자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건설 작업 과정은 근로자 개인의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기계화와 표준화를 완전하게 이루기 어렵다. 넷째, 건설 작업은 여러 종류의 작업 상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는 철근 작업, 콘크리트 작업, 벽돌쌓기 작업, 미장 작업, 목공 작업, 형틀 작업, 전기 작업, 배관 작업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기업은 건설업의 독특한 구조에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선택적인 고용 전략을 추구한다. 이런 전략은 건설직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최항순, 1998; 방하남, 1999). 즉 건설 기업은 관리에 필요한 가장 적은 수의 인력만을 정규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생산에 실제로 필요한 노동 인력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선택적 고용 전략 때문에, 건설직 일용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직 일용 노동시장은 '구조가 없는' 노동시장의 성격을 지닌다(방하남, 1999). 이에 따라 건설직 일용 노동시장은 외부노동시장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 노동시장에서는 내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공식적인 경력이나 승진 기회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인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고 정형화된 직업 경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형화된 직업 경력이 직접적으로 금전과 비례해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이 매우 적다. 그 결과,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빈번하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건설근로자와 관련된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방하남, 1999). 첫째, 고용이 불안정하다. 둘째, 고용관계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2)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

건설업과 건설직 노동시장의 독특한 구조와 특성은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설업은 다단계의 하청으로 이루어져, 건설 일용근로자는 이중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불리한 여건 때문에,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은 불안정해진다(윤여덕·나영선, 1994). 따라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특징에서 드러나듯이,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고용 상태가 매일 유지된다는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Leino-Arjas 외, 1999; 백석근, 1996; 김성숙·김희은, 2006). 특히 건설 작업은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설직 근로자들 중에는 단기적인 실업 상태에 반복해서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생활은 반(半)실업 상태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고용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수입을 얻지 못한다. 특히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옥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매달 얻는 수입은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인수범, 2001; 김정훈 외, 2009).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매달 일하는 날짜의 수나 매달 얻는 수입을 미리 예상할 수 없다. 어느 분야의 경우에는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직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겨울에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력은 임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방하남, 1999; 최명선, 2006).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생활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물질적 차원에서 사

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나 복지제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정병은·장충권, 2006). 이에 따라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복지제도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기업과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사회복지제도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에 속하고 있다. 그 결과,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방하남, 1999; 이명규, 2003).

또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작업 환경은 열악하다(백석근, 1997; 손창백, 2006; 정병은·장충권, 2006; 최명선, 2006). 우선 건설 작업은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 또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설현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성숙·김희은, 2006; 최명선, 2006). 실제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건설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최상준·김신범, 2009). 그러나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 등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노동 여건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탓에, 자신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정병은·장충권, 2006).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3)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에 따른 정신건강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크게 겪기 때문에, 정신건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 예전의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사회의 취약층 출신이 많았다. 예전의 경우, 농촌을 떠난 도시 빈곤층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취업하기 쉬운 건설 현장으로 몰려들었다(최항순, 1998). 이런 배경 탓에, 일반적으로 건설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고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자긍심도 낮은 편이다. 이런 점은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이른바 '노가다'나 '작업인부'나 막노동꾼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백석근, 1996; 이명규, 2003; 최명선, 2006). 이에 따라 일반인에게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최하층의 근로 빈곤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고용이 연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직업이나 근로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기가 어렵다(Leino-Arjas 외, 1999). 그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므로 정신건강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와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건설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에 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현장을 방문할 날짜를 약속한 후에, 해당 날짜에 가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작업은 2007년 9월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313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13부는 응답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설문지 300부만을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경우,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메저(Mejer, 2000)가 개발한 사회적 배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로통계(Eurostat)의 사회적 배제·빈곤연구팀이 논의한 틀에 근거한 척도로서, 사회적 배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노병일, 2006: 132-136).

본 척도의 문항 수는 20문항이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본 척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더 크도록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값은 0.867로 나타나, 본 척도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경우,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래들로프(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 증상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 인구층을 위해 개발된 척도인데, 일반 인구층과 특수 인구층 모두에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시하기가 용이하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 수는 20문항이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본 척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더 크도록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0.957로 나타나, 본 척도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인 PASW Statistics 18(SPSS의 새로운 이름)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부호화 작업(coding)을 거친 후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고용 관련 특성의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인구적·고용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인구적·고용관련 특성과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은 남성이 95.3%이고 여성이 4.7%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건설직에는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방하남(1999)의 분석과 일치한다. 연령은 30대가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31.7%, 50대 이상이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나 기타가 4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교가 23.7%, 기독교가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이 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가 19.3%, 전문대학 졸업이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100~200만원이 4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300만원이 39.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층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54.0%로 가장 많았는데,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도 44.3%나 되었다. 이에 비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0.7%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상태는 결혼이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혼이 25.0%, 이혼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수	속성	빈도(명)	백분율(%)
성	남성	286	95.3
	여성	14	4.7
연령	20대	33	11.0
	30대	126	42.0
	40대	95	31.7
	50대 이상	46	15.3
종교	불교	71	23.7
	기독교	52	17.3
	천주교	43	14.3
	무교·기타	134	44.7
교육	중졸 이하	58	19.3
	고졸	136	45.3
	전문대졸	55	18.3
	대졸 이상	51	17.0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4	4.7
	100~200만원	142	47.3
	200~300만원	119	39.7
	400만원 이상	25	8.3
주관적 생활수준	하층	136	44.3
	중층	162	54.0
	상층	2	0.7
결혼 상태	결혼	95	31.7
	미혼	75	25.0
	이혼	12	4.0
	기타	8	2.7
합 계		300	100.0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고용과 관련된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현 직장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3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년 이상이 23.3%, 2년이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일 작업시간은 10시간이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1시간 이상이 23.0%, 8시간 이하가 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약 3분의 2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작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 경험의 경우, 경험 있다가 29.7%, 경험 없다가 70.3%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고용 관련 특성

변수	속성	빈도(명)	백분율(%)
현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	117	39.0
	2년	53	17.7
	3년	35	11.7
	4년	25	8.3
	5년 이상	70	23.3
일일 작업시간	8시간 이하	64	21.4
	9시간	41	13.7
	10시간	126	42.0
	11시간 이상	69	23.0
산업재해 경험	없다	211	70.3
	있다	89	29.7
합 계		300	100.0

2) 사회적 배제의 현황

조사대상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평균값은 2.82(5점 기준: 1=매우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사회적 배제를 겪는 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예상되는 바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결과는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최하층의 근로 빈곤층이나 가장 천대받는 근로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최명선, 2006; 인수범, 2001).

3) 우울의 현황과 유발 요인

(1) 우울의 현황

조사대상자가 겪는 우울의 평균값은 2.68(5점 기준: 1=매우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예상되는 바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결과는 건설직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자긍심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에서 예측되는 바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Leino-Arjas 외, 1999).

(2) 사회인구적·고용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

사회인구적 특성과 고용 관련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우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사회인구적·고용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

변수	속성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F값	사후검증 [#]
성	남성	286	2.71	0.63	3.553**	
	여성	14	2.09	0.76		
연령	20대	33	2.51	0.76	.982	
	30대	126	2.67	0.64		
	40대	95	2.74	0.59		
	50대 이상	46	2.68	0.59		
종교	불교	71	2.62	0.56	1.139	
	기독교	52	2.64	0.65		
	천주교	43	2.58	0.74		
	무교·기타	134	2.75	0.66		
교육	중졸 이하	58	2.82	0.60	2.904*	a>b>c,d
	고졸	136	2.73	0.63		
	전문대졸	55	2.54	0.64		
	대졸 이상	51	2.53	0.74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56	2.83	0.58	12.590***	a>b>c
	200~300만원	119	2.57	0.71		
	400만원 이상	25	2.23	0.42		
주관적 생활수준	하층	136	2.89	0.59	5.374***	
	중·상층	164	2.50	0.65		
결혼 상태	결혼	95	2.78	0.72	1.795	
	미혼·이혼·기타	205	2.63	0.61		
현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	117	2.76	0.65	2.425*	a<b
	2년	53	2.78	0.48		
	3년	35	2.55	0.66		
	4년	25	2.70	0.51		
	5년 이상	70	2.51	0.76		
일일 작업시간	8시간 이하	64	2.74	0.57	2.129	
	9시간	41	2.53	0.66		
	10시간	126	2.63	0.68		
	11시간 이상	69	2.82	0.63		
재해경험	없다	211	2.62	0.60	-1.983*	
	있다	89	2.80	0.75		

사후 검증: Scheffé test

* p<.05, ** p<.01, *** p<.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t=3.553$, $p<.01$). 즉 여성 근로자보다는 남성 근로자가 우울을 더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높은 고용 불안정은 여성 근로자보다는 남성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Artazcoz 외, 2004).

그리고 교육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F=2.904$, $p<.05$).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교육은 근로자의 주관적 건

강과 유의미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Rodriguez, 2002).

또한 월 소득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F=12.590, p<.001$).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득은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과 유의미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Rodriguez, 2002).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주관적 생활수준도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F=5.374, p<.001$). 즉 중상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하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근로자보다 우울을 더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이 자신의 위신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만하다(Turnin, 1967).

그리고 현 직장 근무기간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F=2.425, p<.05$).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근무기간이 2년인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보다 우울을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이 아주 짧은 근로자는 사업장에 적응하느라 우울을 경험할 심리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약간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적응기를 벗어나 새롭게 현실을 인식하면서 우울을 더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재해 경험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t=-1.983, p<.05$). 즉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겪지 않은 근로자보다 우울을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피로운 사건은 우울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유광, 1995).

(3)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r=.474, p<.001$). 즉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정도가 클수록, 근로자가 겪는 우울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활이 불안정하고 자기 직업과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자긍심이 적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백석근, 1997).

<표 4>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상관관계

	사회적 배제	우울
사회적 배제	1.000	
우울	.474***	1.000

*** $p<.001$

4) 조사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인구적고용관련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사회인구적 요인과 고용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의 [모델 I]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 VIF값을 통해서, 회귀모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모델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들 중에서 성, 월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산업재해 경험은 근로자의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산업재해를 경험하였을수록, 근로자의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Rodriguez, 2002; Artazcoz 외, 2004; 최상준·김신범, 2009).

또한 <표 5>의 [모델 I]에서 표준화된 계수(β)의 값을 비교해 본 결과, 근로자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월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199$).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우울을 잘 예측하는 변수는 성($\beta=.196$), 주관적 생활수준($\beta=-.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5>의 [모델 I]에 나타난 독립변수들 모두는 근로자가 겪는 우울의 18.8%를 설명하였다($R^2=.188$).

<표 5> 사회인구적·고용관련 특성과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 I]				[모델 II]			
	b	β	t	VIF	b	β	t	VIF
(상수)	2.412		5.328		.711		1.406	
성 ¹⁾	.602	.196	3.495**	1.121	.446	.145	2.720**	1.147
연령	.007	.088	1.239	1.802	.007	.093	1.400	1.802
교육	.021	.035	.520	1.578	.047	.077	1.225	1.597
월 소득	-.181	-.199	-2.905**	1.674	-.095	-.104	-1.574	1.767
주관적 생활수준	-.224	-.176	-2.693*	1.530	-.149	-.118	-1.889	1.565
결혼 상태 ²⁾	.119	.085	1.373	1.376	.154	.111	1.889	1.383
현 직장 근무기간	-.001	-.090	-1.590	1.132	.000	-.010	-.178	1.198
일일 작업시간	-.010	-.020	-.360	1.056	.004	.008	.149	1.064
산업재해 경험	.180	.126	2.270*	1.108	.122	.086	1.631	1.125
사회적 배제					.455	.368	6.238***	1.408
R		.434				.533		
R ²		.188				.284		
F		7.460***				11.483***		

주) 가변수 처리: 1) 남성=1, 2) 배우자 있음=1

* p<.05, ** p<.01, *** p<.001

그리고 나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인구적·고용관련 요인과 사회적 배제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의 [모델 II]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역시, 회귀모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표 5>의 [모델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들 중에서 성과 사회적 배제는 근로자의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남성일수록 근로자의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배제를 겪는 정도가 클수록 근로자의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백석근, 1997; Artazcoz 외, 2004).

또한 <표 5>의 [모델 II]에서 표준화된 계수(β)의 값을 비교해 본 결과, 근로자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사회적 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368$).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우울을 잘 예측하는 변수는 성($\beta=.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5>의 [모델 II]에 나타난 독립변수들 모두는 근로자가 겪는 우울의 28.4%를 설명하였다 ($R^2=.284$). 따라서 근로자가 겪는 사회적 배제는 근로자가 겪는 우울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다 ($\Delta R^2=[.284-.188]=.096(9.6\%)$).

5. 결론 및 제언

근래에 들어 노동시장의 구조가 유연한 방향으로 나감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하고 비전형적인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은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유발시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건설직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우울)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둘째, 사회인구적 및 고용 관련 특성들 중에서, 성, 교육, 월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현 직장 근무기간, 산업재해 경험은 우울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 즉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할수록, 근무기간이 2년 정도일수록, 산업재해를 겪은 경험이 있을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

셋째, 조사대상자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우울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즉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

넷째, 사회인구적·고용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월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산업재해 경험은 우울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 즉 남성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산업재해를 경험하였을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 이 경우, 우울을 가장 예측하는 변수는 소득이었고, 그 다음으로 성과 주관적 생활수준의 순이었다.

다섯째, 사회인구적·고용관련 변수들과 사회적 배제 변수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과 사회적 배제는 우울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 즉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남성일수록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 이 경우, 우울을 가장 예측하는 변수는 사회적 배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실천적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사회적 배제는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약한 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우울 문제를 사회복지사나 관련 전문가가 다룸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겪는 사회적 배제에 관해서도 주목하며 사회복지실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상한 바와는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이 낮은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취약한 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나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실천의 기법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을 통해서 사업장에 바로 적용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노병일, 2008: 92-124).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를 경험한 바가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산업복지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유의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데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정책적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근무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고 또한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가 다양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상실해 사회적 배제의 상태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설계하는 데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월 소득과 주관적 생활수준이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근로자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나, 건설직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에 따른 소득 불안정을 걱정할 가능성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소득과 고용 차원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안정된 노동 시장을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를 경험하였는지 여부가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직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사고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재해는 고용 불안정을 영구하게 만들어 사회적 배제를 증가시키는 사회적 위험이니만큼, 산업복지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적 방안을 설계하는 데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전문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기본 계획에는 EAP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0). 그러나 EAP는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EAP를 건설직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협회(컨소시엄) 방식으로 EAP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노병일, 2008: 123-124).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근로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많고 다양한 탓에, 사회적 배제에 매우 많은 차원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더 많은 차원을 포함하는 척도를 개발해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우울에만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정신건강 영역은 다양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 이외의 다른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건설직 일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의 실태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및 기타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를 비교해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이 점점 더 유연해지는 상황에 새롭게 적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고, 이런 상황은 해당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업복지와 정신보건사회복지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을 더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군태·김창한. 2010. “설문지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현황분석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1): 95-97.
- 김유광. 1995. “우울증의 정체는?”. 『세상사람들』 4: 56-58.
- 김정훈·김승욱·정태상·김용수. 2009.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1): 167-176.
- 노병일. 2006. 『취약 지역의 사회적 배제』. 서울: 다운샘.
- 노병일. 2008. 『현대 산업복지론』. 경기: 공동체.
- 방하남. 1999. “건설업 일용 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정 :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 191-225.
- 백석근. 1996.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동자 특별법”. 『노동사회』 10월: 23-33.
- 백석근. 1997.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극복방안”. 『도시와 빈곤』 27호: 23-40.
- 백석근. 1999. “건설일용노동자 현황과 건설일용노동자활동”. 『노동사회』 64: 58-40.
- 성규탁 편저. 1992. 『산업복지론 :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서울: 박영사.
- 손창백. 2001. “건설경기변화에 따른 생산직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11): 23-40.
- 손창백. 2006. “남성 및 여성 생산직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의식동향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

- 집』 24(4): 169-176.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 비교 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3): 178-208.
- 윤성호. 2005. “한국 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49-176.
- 윤여덕·나영선. 1994. “건설 일용노동자의 자활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한국사회학』 28: 121-141.
- 윤정향. 200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배제의 원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19(1): 59-83.
- 이명규. 2003. “‘노가다 나갑니다’ :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근로 실태”. 『노동사회』 80: 84-88.
- 인수범. 2001. “건설현장노동자의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사회』 80: 86-95.
- 정병은·장충권. 2000. “‘노가다’의 사회자본형성과 한계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연구』 12: 9-37.
- 정이환. 2000. “주변근로자의 사회의식 : 건설 일용노동자의 경우”. 『산업노동연구』 6(2): 117-137.
- 최명선. 2006. “건설노동자의 한과 꿈, 포항에서 폭발하다”. 『노동사회』 9월: 101-107.
- 최상준·김신범. 2009. “여수지역 비정규직 플랜트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산업위생학회지』 19(3): 182-194.
- 최향순. 1998. “도시일용근로자의 실태와 대책방안 : 성남시 건설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5(1): 58-96.
- Akira, Suehiro. 2001. “An Introduction to This Issue’s Special Topic: ‘Atypical’ and ‘Irregular’ Labour in Contemporary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4(2): 159-160.
- Artazcoz, Lucia, Joan Benach, Carme Borrell, and Immaculada Cortes. 2004.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Among Gender, Family Roles, and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 82-88.
- Bardasi, Elena and Marco Francesconi. 2004. “The Impact of Atypical Employment on Individual Wellbeing: Evidence from a Panel of British Workers.” *Social Science & Medicine* 58(9): 1671-1688.
- Barker, Robert. L. (ed.). 2003. *Social Work Dictionary (3r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Benach, Joan, Fernando G. Benavides, Steven Platt, Ana Diez-Roux, and Carles Muntaner. 2000. “The Health-Damaging Potential of New Types of Flexible Employment: A Challenge for Public Health Research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8): 1316-1317.
- Bilsker, Dan. 2006. “Mental Health Care and the Workplac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2): 61-62.
- de Haan, Arjan. 1999. “Social Exclusion: Towards a Holistic Understanding of Deprivation.” www.dse.de/ef/poverty/dehaan.htm.
- Kivimaki, Mika, Jussi Vahtera, Marianna Virtanen, Marko Elovainio, Jaana Pentti, and Jane E. Ferrie. 2003. “Temporary Employment and Risk of Overal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8(7): 663-668.
- Leino-Arjas, Paivi, Juha Liira, Pertti Mutanen, Antti Malmivaara, and Esko Matikainen. 1999.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among Construction Workers: Prospective

- Cohort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19, Iss. 7210: 600-605.
- Mausner-Dorsch, Hilde and William W. Eaton, 2000.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and Depression: Epidemiologic Assessment of the Demand-Control Mode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11): 1765-1780.
- Mejer, Lene. 2000. "Statistics on Social Exclusion: The EU Methodological Approach." Eurostat.
- Nätti, Jouko, Ulla Kinnunen, Anne Mäkikangas, and Saija Mauno. 2009. "Type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Mortality: Prospective Study among Finnish Employees in 1984-2000."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2): 150-156.
- Percy-Smith, Janie. 2000. "Introduction: The Contours Of Social Exclusion." pp. 1-21. in *Policy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Towards Inclusion*, edited by Janie Percy-Smith. Berkshire, UK. Open University Press.
- Pierson, John. 2002. *Tack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 Power, Anne. 2000. "Poor Area and Social Exclusion." pp. 1-20. in *Social Exclusion and the Future of Cities*. Londo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driguez, Eunice. 2002. "Marginal Employment and Health in Britain and Germany: Does Unstable Employment Predict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55: 963 - 979.
- Ross, Catherine E. 2000.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177-187.
- Silver, Hilary.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9.
- Social Exclusion Unit. 2004. *The Drivers of Social Exclus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r the Social Exclusion Unit in the Breaking the Cycle Series*. London: Social Exclusion Unit.
- Social Exclusion Unit. 2005. "What Is Social Exclusion?" www.socialexclusion.gov.uk.
- Tumin, Melvin M. 1967. *Social Stratifi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Virtanen, Marianna, Mika Kivimäki, Matti Joensuu, Pekka Virtanen, Marco Elovainio, and Jussi Vahtera. 2005. "Temporary Employment and Health: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4(3): 610-622.
- Virtanen, P., V. Liukkonen, J. Vahtera, M. Kivimäki, and M. Koskenvuo. 2003. "Health Inequalities in the Workforce: The Labour Market Core-Periphery Stru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2(6): 1015-1021.
- Virtanen, Pekka, Jussi Vahtera, Ulla Broms, Lauri Sillanmaki, Mika Kivimäki, and Markku Koskenvuo. 2008. "Employment Trajectory As Determinant of Change in Health-Related Lifestyle: The Prospective HeSSup Study."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8(5): 504-508.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f Marginal Workers on Mental Health

Rho, Byeong-Il
(Daejeon University)

Son, Jung-Hwan
(Daejeon University)

As intense economic competition has led to more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marginal or atypical employment has rapidly grown. Although marginal work represents an important proportion of whole employment, it is still characterized by insecure and unfavorable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employees in marginal jobs are highly likely to be subject to social exclusion. In turn, social exclusion puts marginal workers in a high risk of mental health problems. One of major mental health symptoms has been depression. So far,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f marginal employees on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Hence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f casual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prototype of marginal employees, on depression. Its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exclusion has influence upon depression of marginal workers. This study is the first one to delve into the relationships between temporary employment,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of marginal employees. Yet much more empirical researches are needed in order to shed brighter light on these relationships.

Key words : marginal employment, social exclusion, mental health, depression, casual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논문 접수일 : 10. 08. 25, 심사일 : 10. 09. 04, 게재 확정일 : 10. 10. 04]